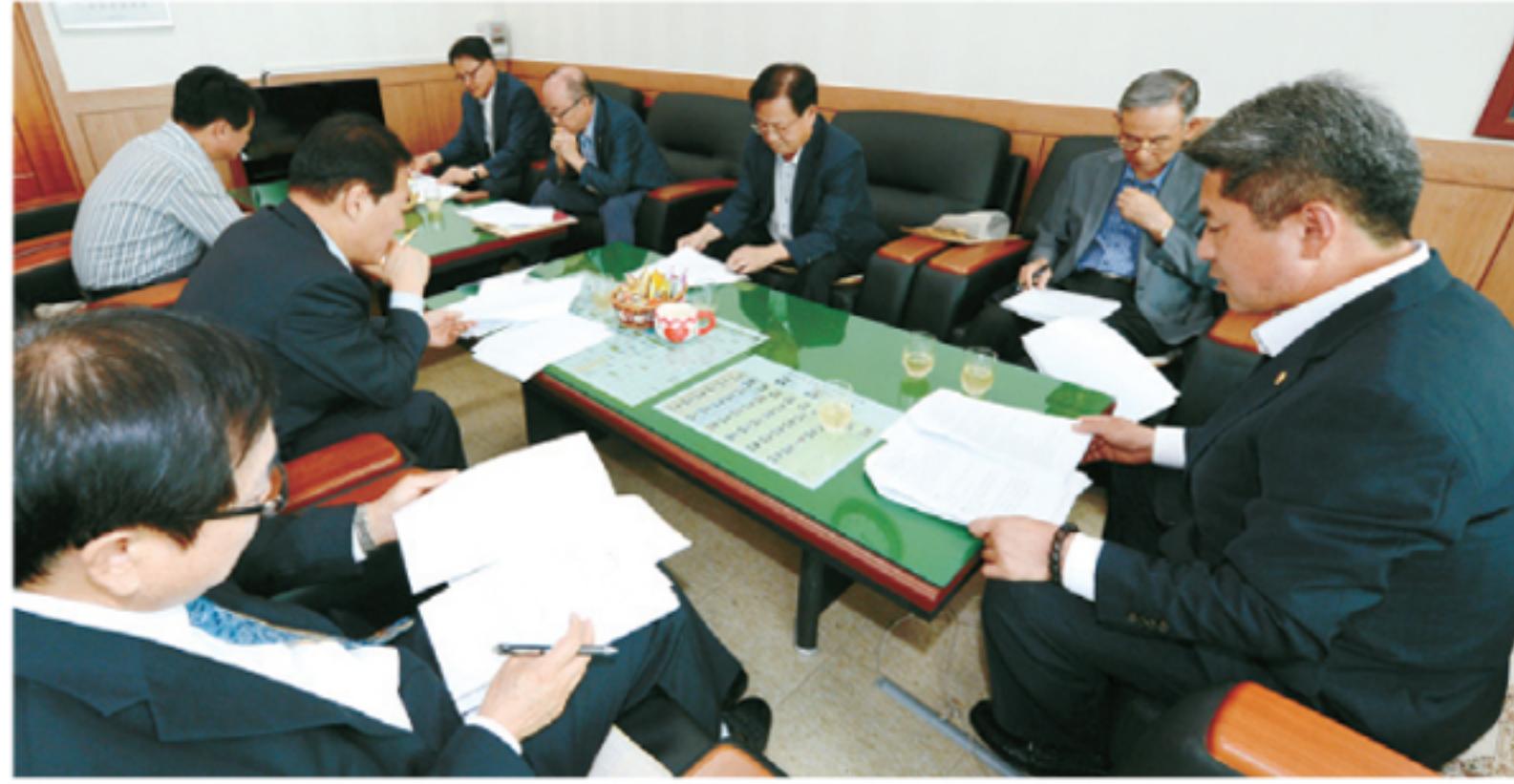


충북도 '효행장려조례' 만든다

도의회 최병윤 의원 발의
효행진흥원 건립 등 제시

효행조례안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기관·평생교육원 등 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효행교육 장려·지원
- 충청북도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효행자에 대해 일정한 예우와 지원
- 효행사업 수행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충북도의회는 7월 31일 현대적 의미의 효문화 혁신 등을 위해 효행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로 하고 그 시안을 마련, 정책복지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 효조례가 없는 곳은 충북과 제주도 뿐이다.

이날 정책복지위원회 최병윤 의원(재선, 음성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전문 11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례제정의 목적(1조)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보존 장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호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중요 내용은 상위법인 효행장

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가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초중등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 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효행교육을 장려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는 또 충청북도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효행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우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병윤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

로, 급속한 노령화 시대(충북 65세 이상 노인, 도 전체인구의 14.3%)를 맞아 가족 유형이 학가족화·뵙과 동시에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 조례를 제정해 시

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조례안에 효 행 등의 용어 정의 명기 직장에서의 날너 효행교육 확대 강화 현대 적

효 교육지도자 양성 활용 효 문화 지원센터 대신 효문화 진흥원 건립과 기부금 수납 및 효 관련 수의 사업 가능 전 체 도의원 명의로 조례안 발의 조례안 발의 시 필요 소

요예산 추계 협회 등을 주문했다.

최병윤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 조례안에 반영하여 가능한 한 오는 9월중으로 조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구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사장, 심의보 충청대 교수발제 수행, 김창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성호 충북교육청 인성교육담당 학장관, 김춘길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고문, 이홍구 대한노인회 읍성군 지회장, 이상익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이상도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춘길 편집고문>

의료급여기관 업무담당자 충북도, 협력강화 간담회

충북도내 의료기관과 도시군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7월 22일 도내 의료급여기관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기관 관계자 및 시군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입원 사례관리의 성과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기관과 도시군의 협조체계 구축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사회복지협, 정부지원금 받는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선정, 5억 인센티브 50세 이상 퇴직자 지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협의회)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3년 이상의 전문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유한 만 5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자)의 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

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적으로 참여상 및 활동처를 모집중이다.

참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자신의 재능에 따라 활동처와의 매칭을 통해 행정지원, 상담멘토링, 사회서비스,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교육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노인임플란트 지원 등 확대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 6.07%로 결정되고, 2조 1천억원의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희표)는 6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찬 차관)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

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도 나누고
활동비도 받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매칭하여 자신의 경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기간 2014. 8월 ~ 12월

* 참여자 1인당 연480(월120)시간 이내 참여기관과 탄력적 활동 가능

활동내용

-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행정지원, 상담멘토링, 사회서비스,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교육연구 등 모든 분야가 가능합니다.
- 예) 사회복지사-상담, 사례관리, 교사-학습멘토링, 상담, 공무원-행정지원, 재무컨설팅 등

활동비지원내용

- 시간당 2,000원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교통비 3,000원, 식비 5,000원 추가 지급)
 - * 1일 4시간: 월 32만원 / 1일 8시간: 월 48만원 지급 (월 20일 기준)
 - * 상해보험 및 교육비는 무료 가입 (활동비는 참여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방문 및 이메일접수 (cpcsw@chol.com)

문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Tel. 043-234-0840~2 (홈페이지: cwin.or.kr)

참여자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단, 관련직종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필요 *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는 경력과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기관
참여자격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권역 250명 (선착순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경력기술서 1부 - 활동희망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신청서 1부 - 사회공헌활동 계획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충북사회복지협-미래에셋생보 업무협약

사회복지사도민 위한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전개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는 7월 8일(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주)(수석부회장 최현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통해 조직 활성화 CS 은퇴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강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자 세미나 및 부동산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주제로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충북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창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꼭 필요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은퇴, 자산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에 관한 지식을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및 충북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교육강좌 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는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미래에셋생명보험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식을 체결할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의 어른' 이상훈 회장 별세

6월 19일 향년 77세로 별세한 소석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충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염수됐다.

이 회장이 대표로 일했거나 참여했던 충북지역개발회, 충북공동모금회, 충북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영결식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충북 도내 추모객들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한번더 전 칭주시장을 지난날 강직한 언론인으로서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충북

발전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끊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셨다며 3번이나 실패했던 청원 청주 통합을 현정 사상 최초 주민자율통합으로 이뤄내시는 등 고인이 남기신 큰 족적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며 현신적인 지역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뜻은 청주주민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남다른 지역사랑으로 평생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충북의 어른 이상훈 회장은 여든이 가까이 되는 나이에도 충북 현장을 지켜왔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 충북에

부임하거나 정치인이 대소사를 논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충북의 원로 1호가 바로 이 회장이었다.

그는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충북도공동모금회장, 충북경제포럼 대표, 남부누리 나눔회 공동회장, 충북4-H 후원회 부회장, 세계직지문화협회 회장,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지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자랑스러운 정론인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지방자치와 지방언론*, *한국언론과 지방신문* 등이 있다.

진천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교양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총력

진천군은 민선 6기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겨진천을 목표로 여성의 진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여성회관 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성들에게 개인 눈높이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상담 실시, 취업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의 군비를 출연해 현재 까지 4억5천만원을 적립하고 적립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90%를 여성 관련 사업이나 정책 등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및 혼인 귀화 여성 등 540여명 이상의 다문화 가족을 위해 3억5천300만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이밖에도 군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미 훈자 결혼지원금 지급, 다문화가족 행복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선미 군 여성정책팀장은 여성이 곧 진천의 힘이라는 생각으로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여성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더 꿈을 키울 수 있는 진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우수사례' 선정

보은군이 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안전행정부 주최로 문경재 유스호스텔에서 전국 2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가해 일

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창조경제, 민생경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보은군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성과 등을 잘 부각시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

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각 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은군은 타 자치단체와 차별점을 두어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이 특별한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창조경제, 민생경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보은군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성과 등을 잘 부각시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004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합니다.

1004지역사회봉사단이란?

단체(동아리)가 가진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관, 시설 및 재가 대상자등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문봉사단이다.

★ 구성 및 활동

- 의료, 문화, 교육, 상담, 벽화, 노력봉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연 4회 이상 활동

전국 노인 410만명, 기초연금 혜택 받는다

충북은 16만5천여명 수령 줬다 빼는 제도 보완 요구도

7월 25일부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충북 16만5203 명)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14년 7월 현재 월소득 87만원 이하(부부 139만 2000원)이다. 국민연금 11년 가입자 까지는 20만원을 받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줄어들다. 20년 가입자부터는 10만원을 받았으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30만원에 못 미치는 노인은 20만원을 받았다.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만명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밟혔다.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제외됐다.

첫째 보유한 차량 가격이 4천 만원을 넘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의 승용차, 골프, 쿠션 회원권 소유 노인(단 10년 이상 된 차량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대표적 사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자 소득 인정액이 높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밟혔거나 받은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를 삼갔던 노인들에 대한 근본적 보완대책이 필요한 점이다. 이 경우는 한마디로 기초연금을 주었다 빼앗아 가는 꼴이어서 해당 노인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정부는 이들에 대해 2년 동안 의료급여자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줬다 빼는 기초연금으로 빙그레 노인들을 윤리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게는 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춘길 편집고문)

단양군 공무원 노조 지역사회 봉사활동 '구슬땀'

단양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지부장 손명성) 조합원 20여명은 7월 5일, 능촌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집 고쳐주기 행사를 기렸다.

이날 군 노조 봉사단은 매포읍 평동리 송준불(여 68집)을 찾아 생활불편 해소와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전기 직류 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 낡은 배선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함께 했다.

단양군지부는 지난 3월 군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 만들기를 출범기조로 발표한 후 매월 1회 이상 각 읍 면을 순회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출범식 때 축하회원 대신 받은 쌀 60포를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집수리 봉사, 농촌일손 들키 등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단양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평동 송준불씨의 집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적성면 소재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홀로 생활하던 거동불편 수급자가 건강악화로 인해 주거공간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집 정리를 위한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단양군 노조 손명성 지부장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많은 국민

이 함께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라며 작은 활동에 불과하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이 힘내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의 장애로 원활한 상담서비스에 제한이 있었다.

1366충북센터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수화통역센터, 청주수화통역센터와 핫라인(hot line) 체계를 구축하고 야간전담 수화통역사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1명씩 배치하고 있다.

단체(동아리)가 가진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관, 시설 및 재가 대상자등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청각장애여성 1366서비스

야간 주말에도 이용 가능

청각장애여성들이 야간과 주말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밭벗고 나선 것. 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로 1366충북센터를 찾는 청각장애여성들을 위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동안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긴급피난처 등을 찾아오는 청각장애 여성들은 상담원과의 상호

★ 위촉신청

- 온라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 → 참여신청
- 오프라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방문 및 전화 신청

★ 지원

- 맞춤형 봉사활동 제고
- 봉사활동 소요 물품 구입비
- 문화·예술 공연 무료 관람 지원(복지넷)

★ 관련문의

- 전화문의 : 043)234-0840~2
- E-mail : chungbukcody@gmail.com
- 담당자 : 박희진 코디네이터



폐자원 활용 새로운 날개를 달다

청주대학교 '초록지구 캠페인' 펼쳐 수익금 전액기부

폐넥타이, 폐휴지심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충북 청주대학교(총장 김윤배)는 지난 7월 19일 청주 중앙로 소나무길에서 초록지구 캠페인을 펼쳤다.

청주대 환경동아리인 그린어스가 주도하고 청주대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가 힘을 모아 개최한 이 캠페인에는 지난달부터 학생들이 수거한 폐자원을 통해 제조한 업사이클 제품이 판매됐으며, 모든 수익은 지역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버려지는 자원의 재사용을 통해 아직은 생소한 업사이

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업사이클은 단순히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해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20~30여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이날 청주대 학생들은 폐넥타이를 카드지갑과 팔찌로, 폐유리병을 저금통으로, 폐휴지심을 방향제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했다.

또 다진나무에 환경다짐 포스트잇 붙이기, 환경다짐 손부채 만들기 등을 같이 실시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저탄소 운동,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청주대 학생들이 7월 19일 청주 중앙로 소나무길에서 초록지구 캠페인을 열고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 판매하고 있다.

공군 19전비 장병들, '사랑의 현혈' 생명 나눔 실천

30만cc 채혈 충북혈액원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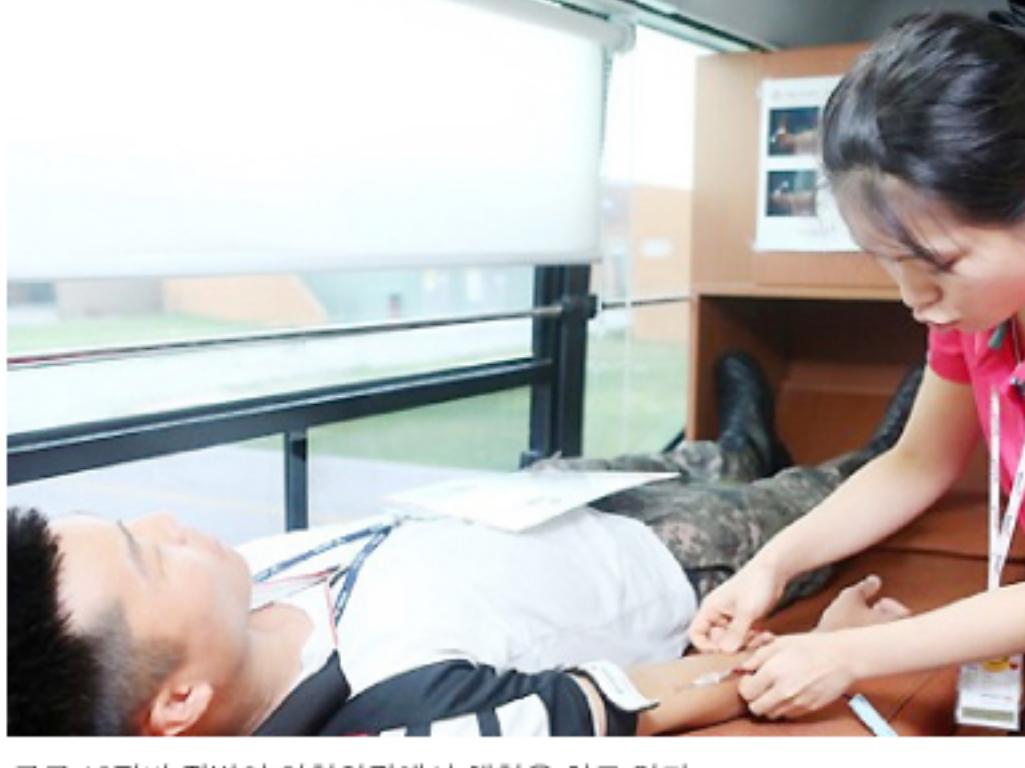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장병들이 7월 21~25일까지 사랑의현혈 행사를 통해 무려 30만cc의 혈액을 채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쓰라고 충북혈액원에 기탁, 기습 풍물한 감동을 주고있다.

이번 현혈행사는 지속되는 한여름 무더위와 학생들의 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현혈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혈액 재고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19전비는 7월 21~25일까지 5일간 혈액원 소속 현혈차량 4대를 기

지 곳곳에 배치, 장병들이 각자의 임무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쉽게 현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귀한 장병들의 현혈액을 병상에서 고통 받는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9전비는 25일까지 진행된 사랑의 현혈에 약 70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 30만cc의 혈액을 채혈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혈액수급이 부족한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현혈운동에 적극 동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군 19전비 장병이 현혈차량에서 채혈을 하고 있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전비는 혈액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한적십

자회로부터 현혈 유공 금장을 받은 군수전대 박상덕 중사(부사후 181기)를 비롯한 다수의 현혈 유공자들이 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충북경찰청 아동학대 토론회

충북경찰청(청장 윤종기)은 7월 9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5층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균질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충북경찰청이 7월 9일 도청, 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균질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열정이 넘치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베이비부머봉사단에 참여합시다!

■ 베이비부머봉사단 활동 소개

베이비부머봉사단이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 및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50대 연령층 대상 봉사단입니다.

구분	봉사활동내용
재가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 ·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봉사팀별 1~2가정 봉사) · 정서지원, 청소, 빨래, 설거지, 식사보조, 밀반찬 배달 등
전문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기능 중심 소외계층 가정방문 재가봉사활동 · 보건의료봉사, 법률봉사, 집수리, 이미용봉사, 해충 방제, 옥내 전기 · 가스안전점검, 전기·전자제품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 신청대상

55~63세(±52~66세 포함) 개인 및 5인 이상 구성된 각종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봉사활동

연중(월 2회 이상 권장)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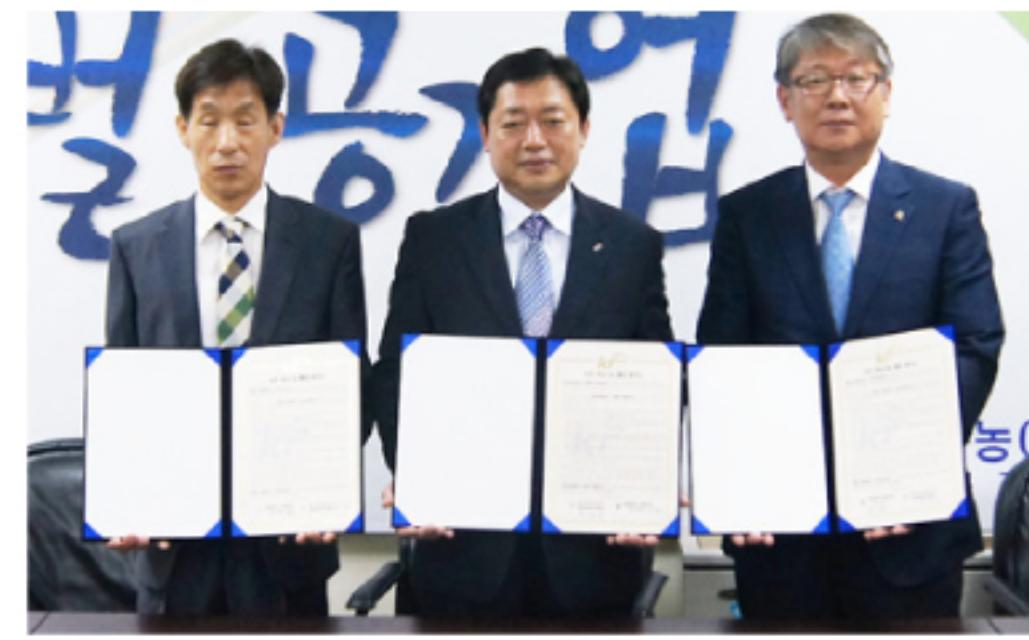
vms.or.kr 홈페이지에서 '베이비부머봉사단 위촉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도협의회 이메일 혹은 팩스(신청서 참고)로 접수 / 이메일 : cpcsw@chol.com, 팩스 : 043)234-0849

■ 혜택

- ① 재가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③ 우수 봉사단체의 경우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 ④ 우수 봉사단체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기회 제공
- ⑤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충북 농어촌공,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협약'

음성 강동대 청주 서원대와 체결
농촌마을 쇼핑몰 구축 등 계획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박재성)는 7월 9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음성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주 서원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농촌 재능나눔 활동 활성화다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단체는 2014년 재능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충북에 선정된 단체로 강동대 산학협력단은 농촌마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고, 서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창의력 인성교육 캠프 운영과 정기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재능나눔 활동이란 개인, 기업, 단체가 습득한 무형의 재능을 타인 또는 다른 기업,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으로,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

bank.go.kr) 콜 센터(☎ 1577-7820)를 운영해 농촌 재능나눔의 가교(假橋)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공사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이 거리나 비용의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 한해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재능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천 광혜원고 '무이봉우리'

음성 향애원 방문 봉사활동

충북 진천 광혜원고의 지속적 봉사활동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혜원고등학교(교장 유승자)는 학생봉사동아리 무이봉우리와 희망 학생 30명이 음성에 있는 향애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계획과 참여로 이뤄졌으며 지난 5월 24일 1차 봉사활동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학생들은 향애원 청소, 잡초 뽑기, 세탁 보조 등의 일을 도왔고, 준비해온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4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0년 청주 서부소방서와 지역 내 화재예방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넌 1회 화재없는 안전마을 행사를 참여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부 봉사활동의 기부된 의류들은 NGO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의 제3세계 나라로 전달되며, 현지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제3세계 난민들의 현지 교육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SK하이닉스, '화재없는 안전마을' 후원

SK하이닉스(대표이사 박성욱)는 7월 7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1리 마을에서 화재 취약지구 소화기구 보급사업인 '화재없는 안전마을' 행사를 통해 소화기구를 전달하고 있다.

재발생시 대피 신고요령 등 소방 안전교육을 제공했다.

SK하이닉스는 대상 4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0년 청주 서부소방서와 지역 내 화재예방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넌 1회 화재없는 안전마을 행사를 참여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동대, 해외 의류기부 봉사 전개

캄보디아 등 제3세계 나라 전달

영동대학교 사회봉사센터 팔두 알 사회봉사단은 해외 의류기부

봉사활동으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기부받은 의류들을 7월 11일 NGO단체(웃肯)를 통해 전달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해외 의류



“구직장애인 성공 취업 달성 기대”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대상 취업캠프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리 정용재)에서는 취업을 준비중인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기술 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 자신감 부여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11일 까지 1박 2일간 2014년 취업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취업캠프에는 도내 구직 장애인 총 27명이 참가했으며 충주시 양성면에 위치한 퀸팅린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첫째 날, 구직 장애인의 취업 자신감 증진을 위한 나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의 YM 스피치파워 리더쉽센터 정영미 원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김선광 교수로부터 SWOT 분석을 통한 나의 인생설계라는 강의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손은경 직업재활팀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기술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이후 선배와의 간담회 자리 마련을 통해 취업자 김영훈님과 이상미님을 초빙하여 취업 장애인의 진솔하고 생생한 취업 경험을 듣고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 마지막 일정인 공동체훈련 시간에는 충주를 대표하는 전문 MC인 (주)인부엔터테인먼트 송명정 이사를 초빙하여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일정 내내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홍보의 지사장을 초빙하여 충북지역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전략 이라는 주제로 도내 장애

인의 고용현황과 성공 취업을 위한 고용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후 참가자 총 27명에 대한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취업캠프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의 충북지사장 및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김선광 교수 등 유관 기관 관계자의 협조로 무료 강의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전문 MC인 (주)인부엔터테인먼트 송명정 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전문 레크레이션 진행을 지원

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지원과 협조를 통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리 정용재)에서는 이번 취업캠프에 참가한 구직 장애인들의 초등초등한 눈물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취업을 갈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지와 열의에 찬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모조록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구직 장애인들이 취업준비를 위한 역량을 견고히 하여 성공 취업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 제제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극 대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전제로 하기로 운영할 일이다.

특히 운영비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내정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모범적인 복지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는 증평보건복지타운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지금, 군이 마련한 정책은 시기적절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증평복지재단 이사장제 도입… 전문성 강화 기대

증평보건복지타운 위탁 운영기관인 증평복지재단(이사장 이장희)이 상임 이사장제 도입으로 한층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009년 7월부터 보건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증평복지재단은 당초

연봉 3000여만원의 상임 이사장제로 출범했으나 단체장 교체에 따른 초대 이사장 중도사퇴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까지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관리 주체인 재단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재단활성화와 운영내실화에 일정 제약이 있었고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

적과 더불어 특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인요양원 등 산하 기관들이 운영 내실화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할 관리 주체가 명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군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상임 이사장제 전환은 각 기관 간 협

력을 제제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극 대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전제로 하기로 운영할 일이다.

특히 운영비 대부분이 군비로 충

당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내정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모범적인 복지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는 증평보건복지타운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지금, 군이 마련한 정책은 시기적절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박종은씨 전자출판대회 금상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 정보화교육실에서는 6월 25일~27일 3일간 이루어진 충청북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자출판분야에 5명이 출전했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자출판 대회가 9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전자출판은 포토샵, 힙글2007 문서작성, 일러스트 3개 부분 모두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금, 은, 동

상을 선정한다. 이번대회결과에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이용자 박종은(금), 김원엽(은), 임기희(동) 님께서 금상 은상 동상을 모두 석권했다.

이번 대회 참여자는 금상 박종은을 제외하고 모두 60대가 넘은 고령으로서 개인별로 상의 의미가 크고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회 은상을 받은 김원엽님은 이렇게 공부를 하게된 동기가 복지관

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 고마운 생각을 늘하고 있습

니다. 관장님과 모든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는 말을 전해 왔다.



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 고마운 생각을 늘하고 있습

니다. 관장님과 모든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는 말을 전해 왔다.

중부권 최고의 로펌 청주로! 7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CJLAW 공증인·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권종원**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진천자활센터 사업실적 최우수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

진천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실시한 2013년 지역자활센터 사업 실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천지역자활센터는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마크가 새겨진 현관판과 기관운영비 및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운영비 2천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진천지역자활센터는 전국 66개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활센터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회망키움통장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수급가구가 평균 1천 200만원의 정부 및 민간지원금을 수령해 끌 수금을 축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기존의 자활기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자활참여자의 취업지원율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자활 성공률이 높은 점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민용순)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에서 힐링타임캠프를 진행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대상 힐링타임캠프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원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개칭 후, 통합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민용순)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에서 힐링타임캠프를 진행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의 쉼을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캠프는 26가정, 총60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가하였으며 나무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동물 목걸이 만들기, 지도를 가지고 숲체원을 탐험하고 퀴즈를 풀어보는 미션 임파서블, 레크레이션,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네이처 스토리텔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푸른 숲에서 자연과 함께하니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려 편안했다. 고 소감을 밝혔고 또 다른 참가자는 무엇보다도 매끼니 맛있는 밥을 주니 아이를 반찬 걱정 안 해서 무척 좋았다고 말해 주위 어머니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청주무심로타리클럽 후원금 전달

청주무심로타리클럽(회장 김기택)은 7월 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석란) 사무실을 찾아 통합청주시를 기념하여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후원금은 청주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 6명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금을 전달한 후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택 회장은 토탈리 정신인 초아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함께 진정성있게 꼭 필요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희망플러스 나눔 캠페인 협약식

용암종합사회복지관-등불회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진)과 등불회(회장 이민성)는 7월 17일(목)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노인세대를 지원하고자 희망플러스 나눔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했다.

등불회와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함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등불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방면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등불회에서 지원하는 후원은 지역사회 어르신 7명에게 매월 지급되게 된다.

오늘 협약식에 참여한 등불회 이민성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더 열심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론

기초연금 바라보기



김영일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12%에 가깝고 얼마 안 있으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 또 2020년대 중반으로 21%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힘을 모아야 한다.

노인들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4고(四苦)라고 한다. 1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고(貧苦)이고 2고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병고(病苦)이며, 주위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는 고독고(孤獨苦)가 3고이고 사회적 역할을 잃음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가 4고라고 한다. 노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여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기초노령연금 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에 매월 9만 9100원, 노인부부가구에 15만 8600원의 연금을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후보

자들이 노인표를 더 얻기 위해 노인복지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를 주겠다고 한 약속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박 후보의 약속에 대한 전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불거진 것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진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전제로 노인들에게 두 배의 연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 무조건 두 배를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도 논란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

기초노령연금은 임금상승률을, 그리고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방식을 적용하면 기초연금이 8년후면 두 배라는 것이 사탕발림이 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다. 이 주장은 세계경제위기 시기 (2009년 전후)를 제외하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설득력이 있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처음 지급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2만 3000명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한 것인데 2만 3000명이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거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개개인의 수령액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93.1%인 382만명이 최대값(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연금이 까인 노인도 11만 6000명이나 됐다.

기초연금지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국민연금 기입자를 역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가 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수급실태를 점검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말 기초연금 텔락 차에 대한 보호장치로 의료급여 특례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쯤에 확정될 특례제도 적용자에게는 앞으로 2년 동안 전기료, 통신료,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아당도 여리 가지 논란에 대해 알면서도 합의를 해줬다. 여야가 합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국가예산을 고려했을 게 뺀한 이치이다. 국민들은 민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최대한 성의를 표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이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또 충북도처럼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체·힘·수·기



이철희
애심회봉사단

저의 오래된 꿈은 고아원 양로원이 불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장애를 가진 분이 많았고, 고이는 또 왜 그리 많았는지요. 저는 청주시 서운동 인근에 회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곳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생활하던 양판도 가까이에 있어 자주 놀던 곳입니다.

저는 지금은 탑동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렵지 않게 자랐지만, 우연한 기회에 전국의 소년원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서울에서 온 김원균 선교사를 만나면서 저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소년원 자원교사, 교도소 교육위원, 여자교도소, 보호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며

출연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특별상을 수상하고 KBS 방송국 등에 소개가 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약간의 잘못을 했을 때 구속 수사보다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검사님들과 자주 대화하며 불구속 수사로 6개월에서 1년 간 편지와 전화 통화, 대면 상담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받으면 죄를 면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중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저와 편지와 대화를 하며 소정의 기간을 잘 마치고 방위산업체에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았으니 저와 부모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여, 오리고기로 점성껏 대접도 받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과분하게도 92년에는 국민일보에 소년원생들의 대부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자교도소 소장이신 강소장님이 저에게 사물놀이를 통해서 여자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교정, 교화하고 싶다고 하여, 악기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하여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창단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재소자들이 정서 힘양에 좋겠다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휘 공부를

하고 돌아온 강창호 전도사 (지금은 포도원 교회 목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학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

경연대회가 열려 재소자들이 특별

저와 관계된 이들은 우즈백에서 온 사이다 훈, 아들 와타비, 딸 우미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후웨이, 아들 태상, 딸 미술, 몽골에서 시집온 아루오카, 남편 베이, 딸 미야, 투메, 비나, 아미옹, 덤파, 둥크롬, 탄자니아의 스티브, 모, 네팔의 열혈 청년 오닐, 새터민 등 그들 중 특별히 몽골 형제자매들이 30가정이 넘습니다.

이들 중 덥셔와 베이, 아루오카는 몽골로 돌아가서 잘 생활하고 있고 제가 2013년 5월과 10월에 몽골에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방문하고 위로 격려를 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3월에는 베트남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있는데 전남 목포의 한국병원에 구엔반 훙이라는 77년생 청년이 이름차를 태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는 미지막 진행하여 첫번째 출발하는 견인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실려 가서 많은 치료를 받다가 죽어서 영인실에 있는데서 죽은 사람이 신호 위반이므로 아무런 보상을 못 받게 되었으니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끝 병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병원비 400여만 원, 장례식장 150여만 원, 화장장 비용 별도 합해 65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이 없어서 죽은 아들을 보려 아무도 나올 수 없으니 한국에서 독지가가 도와줘서 화장을시키고 유골만 베트남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는 저도 자전거 사고로 목뼈,

등뼈 등 8개가 골절되고 오른쪽 손

목 인대가 끊어진 상태로 입원 중이었지만 목과 등뼈에 플라스틱 보호 장구를 차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전날 폭포 한국병원으로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병원 담당자에게 저는 청주에서 개척한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안되지만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그 병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160만원에 처리해 주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여 유골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푸영이라는 사촌 여동생 편에 베트남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 국위선양이고 외국에 나간 우리 동포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자랑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 하와이로 이민 1세대가 사랑수수 농사를 지으려 떠났고, 목일로 광부, 간호사, 일제 때 징용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각지로 노동자로 떠나서 살았기에 지금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간의 부유함으로 교만을 짚고 아니고 지구촌 모두는 한 가족인 것을 알아 도와주며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악하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지상 최고의 행복한 일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상대를 바라보고-듣고-공감하고-의견 이야기하기 의 단계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통의

칼럼 Column

Column

마음의 대화



유준원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여기며,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말하기에 집중하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타인과의 소통의 양은 방대해졌다.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소통하는 선택적 의사소통은 등장하고 있다.

사람은 언어를 배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무수한 듣기 훈련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또한 듣는 것을 통해 타인과의 언어 의사소통을 배우지만, 성인기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듣는 지혜를 잊어버리고 말하는 소통에 익숙해진다.

작가 이외수는 한 강연에서 진정한 소통은 TV가 아닌 전화기라고 비유하며, 상대와 교감하며 끊임없이 함께 하는 공감의 소통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화제를 던지면서 서 말하는 TV 소통 방법이 아닌, 전화기처럼 듣고 난 이후 공감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양방의 소통이 인간관계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며, 그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귀가 아름다운 소통이 필요 한 시점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선택적 의견 수용보다는 경청의 미학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듣기의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소통 관계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자 하는 배려의 경청을 통해 질 높은 소통으로 진정 소통하는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 당장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 동료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맞잡고 마음의 대화를 하면 어떨까. 열마디 말 대신 진솔한 경험의 자세가 상대의 마음을 강하게 어루만져줄 것이다.

서민층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시행

무료개선사업 시행

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대상 | LP가스 호스설치 주택(서민층)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 문의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모든 LP가스 사용주택은 2015. 12.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미하의 과태료 처분)

지역 단신

충북대학교 레오 지역사회봉사단, 농촌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봉사활동



섬김의 손길 지역사회봉사단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나눔

섬김의 손길 지역사회봉사단이 지난 여름 교산 전법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총 65명이 참여하여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으며, 일일 손자 소녀가 되어 어르신들의 말벗 및 정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봉사기간 동안 어르신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리더로!



섬김의 손길 지역사회봉사단이 가난한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색소폰연주 및 실버댄스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행사 관계자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섬김의 손길 봉사단은 색소폰연주 및 실버댄스 등 회원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문화예술 공연팀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소원을 말해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사업 실시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강신숙)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위로받지 못하는 노인층과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저소득(독거)노인가정 소원성취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복대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이***)께서 2개월간 집세지원을 받으셨다.

단지 2번의 지원이었지만,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이 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더 힘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르신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삶의 회망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삶의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해 본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숲 체험 교육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에서는 산림청 녹색사업단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여가활동에 소외된 지역내 장애인 60명에게 숲 체험 교육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숲 체험 교육은 장애특성,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계층의 특성에 맞게 조를 조를 자연공작실, 숲 체험 캠프 숲이 주는 메시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반기 숲 체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및 여가문화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꽃동네대학교 연수단 나이카타

일본 세이료 대학교 방문

꽃동네대학교(총장:이원우)는 2014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5박6일간 일본 니가타-세이료 대학교(이하 세이료 대학)에 14명의 연수단(교수 2명, 직원 2명, 학생 10명)을 파견했다.

글로벌한 인재 양성과 문화탐방,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0년 학술 교류협정을 맺은 꽃동네대학교와 세이료대학은 학생교류단 파견, 행정업무교류, 학술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12년에 이어 2번째 방문으로 일본의 사회복지와 보건 관련 시설현황과 세이료대학의 교육과정 및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방문 교직 원을 통해 학교 건축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달의 법률상식 배상명령 제도

청주시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모집
관리센터 :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상시모집
활동기간 : 07. 18 ~ 12. 31
전화번호 : 043-267-0866

학습멘토 봉사

관리센터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요청인원 : 5명
활동기간 : 06. 10 ~ 12. 31
전화번호 : 043-250-1226

충주시

장애인 한자반 지도 봉사
관리센터 :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요청인원 : 1명
활동기간 : 06. 27 ~ 12. 26
전화번호 : 043-856-1100

작업활동실 업무지원

관리센터 : 마리스타의 집
요청인원 : 10명
활동기간 : 07. 08 ~ 12. 31
전화번호 : 043-853-5313

자원봉사자 모집!

제천시

아동,청소년 공부방학습지도 자원봉사
관리센터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 4명
활동기간 : 05. 25 ~ 12. 31
전화번호 : 043-644-2983

재능기부 및 교육봉사

관리센터 : 덕산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 10명
활동기간 : 05. 14 ~ 10. 29
전화번호 : 070-8100-4727

괴산군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청천재활원
요청인원 : 4명
활동기간 : 05. 09 ~ 12. 25
전화번호 : 043-832-9563

영동군

목욕 자원봉사자 모집(남)
관리센터 :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 3명
활동기간 : 05. 01 ~ 12. 31
전화번호 : 043-743-1500

보은군

주간재활프로그램 활동 보조
관리센터 : 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요청인원 : 2명
활동기간 : 05. 09 ~ 12. 25
전화번호 : 043-544-699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복 / 지 / 만 / 평

잔혹 동화

이창신 www.bokmani.com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9평?

33평?

24평?

우리는 공평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는 충북도내 유일 사회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주택체험관', '디자인체험관', '휠체어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체험관

욕실, 거실, 주방 등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디자인 체험관 UD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들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물건과 기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휠체어 체험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